

#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공사비 상승에 설계 변경 ‘논란’

비엔날레 주차장 활용…예타보다 사업비 올라 실시설계 조정 불가피  
개관 1년 늦어져 2028년 예상…예산 추가 확보 노력없이 시설 축소

광주시가 새롭게 조성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의 설계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관 건립비용 등 사업비가 당초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보인다.

이 같은 설계 변경은 국제공모를 거친 당선작을 변경하는데다 비엔날레 위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개관 예정인 비엔날레 전시관은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인 북구 매곡동 400번지 일원 3만4925㎡에 총사업비 1182억원을 투입해 전시관 2만2776㎡, 주차장 9500㎡ 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2020년에 비해 인건비, 자재비 등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중간설계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점검을 한 결과, 예비타당성을 실시할 때와 비교해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건축을 해야 하므로 실시설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보다 1만3000㎡ 줄어든다. 지하주차장이 약 1만㎡인데 이것을 지상으로 옮리면 공사비가 절감된다”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시설 규모를 축소할 계획으로 다목적 사용관, 창고, 물품보관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새 전시관이 당초 지상 4층, 지하 2층 구조였지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시는 불필요한 시설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문제부 최종 승인이 나면 공사 착공은 12월께로 예상돼, 새 전시관 개관은 당초보다 1년 후인 2028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된 당선작 설계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예산 추가 확보에 앞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뒤따른다. 한편으로 차제에 건물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하드웨어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전시,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문화계 인사 A씨는 “기획단계에서 예산을 적게 잡아 이후 예산에 맞춰 규모를 축소해 ‘품질’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연유로 광주에는 내세울 만한 공공건축물이 견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엔날레 전시관도 예산에 맞춰 설계를 조정하는 것은 현상설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다른 안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용도와 목적으로 맞는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요 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마련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을 크게 짓는 것보다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계 인사 B씨는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경향을 이번에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술의 트렌드가 아트페어 등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년에 1회 열리는 비엔날레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공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문화계 인사 C씨는 “‘현대미술의 1번지’인 비엔날레는 새로운 트렌드와 담론, 앞서가는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비엔날레 정체성에도 부합된다”며 “비엔날레는 갤러리가 아닌 행사를 위한 공간이므로 건물 자체보다는 ‘공간성 확보’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는 내년 2월까지 규모 및 중간 설계를 진행하고 3월 설계적정성 검토(조달청)를 거쳐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진도군 의신면 접도 서해남부 앞바다에서 작업자들이 김을 채취하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조미김, 美 수출관세 ‘면제’…국내 최대 산지 ‘전남 김’ 수출 탄력

전남도,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확대…마른김은 15% 관세 유지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면서 국내 김 최대 산지인 전남의 김 수출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 시트에 조미김이 무관세 품목으로 기재됐다. 다만 마른김은 15%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

조미김에 대한 무관세는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한국산 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김 수출액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1월까지 대미(對美) 김 수출액은 2억2800만달러(3400억원)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9% 늘었다.

대미 김 수출액에서 조미김이 9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국산 김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최대 김 산지인 전남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남도는 이에 맞춰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김 수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김 신 품종 개발·보급으로 경쟁력 확보 ▲친환경·고품질 물김의 안정적 생산 ▲가공시설 스마트화·품질혁신·유통망 구축 ▲수출기업 유치 등 4대 추진전략과 2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는 4235억원을 투입, 지난해 3억 6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김 수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7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세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김 신 품종 개발과 안정적 김 종자 생산을 위해 2030년 까지 신 품종 4종을 개발한다. 또 김 육상재료 시설과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을 확대 지원하며, 전도에 지역 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 센터를 조성해 종자연구와 현장 기술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수산물 인증 척도를 지원, 신규 김 활성화 체계 보급 등으로 친환경 김 양식 생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노후 마른김 건조기 교체, 김 세척수 공동 배출 처리시설 확충, AI 기반 마른김 품질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과 함께 가공 시설 현대화로 위생·품질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단계적으로 국제 마른김 거래소와 대규모 물류단지(FPC·FDC)를 조성해 대량 공급이 가능한 글로벌 공급망과 유통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도,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무안 승달산 일원 2만㎡ 면적…2029년까지 사업비 300억 투입

전남도가 14일 “서남권 유일의 ‘공공형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형 산림레포츠센터는 오는 2029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원·군비 150억원)을 투입, 무안 승달산 일원 2만㎡ 면적에 조성된다.

공공형 산림레포츠센터는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 중부권에만 있는 시설로, 전라권과 충청권 등 서남권에는 전무하다.

전남도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억 1500만원을 확보하면서 공공형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의 첫 단추를 끊었다.

산림레포츠센터는 젊은이과 산야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산림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담당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내에는 산림식물자원을 보전하는 후계원, 숲속 야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한다.

사업 대상지인 무안 승달산 일대는 천혜의 숲과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총력’

### 지역 의료계와 결의대회 본격 행보

광주시가 지역 의료계와 학계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 치과인의 밤’ 행사장에서 지역 치과 의사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갖고 연구원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전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태조 시 인공지능산업장을 비롯해 박원길 광주시치과의사회장, 전남대와 조선대 치과대학병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광주 국가 치의학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결집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관련 정책 수립부터 신기술 개발,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국가 기관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연구원 설립 이슈를 던진 ‘원조’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용역과 포럼, 법안 발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4월부터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유치 논리를 다듬어왔다.

광주의 가장 큰 경쟁력은 텐트한 인프라다. 전

남대와 조선대 등 2개의 치과대학이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연구 인력과 임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교육 기관 보유를 넘어 치과용 소재 부품 기술지원센터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등 연구 기반이 출축해 ‘연구·임상·사업화’가 한 곳에서 가능한 생태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여기에 광주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을 접목하면 미래 치의학 산업을 선도할 최적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도권이나 영남권에 쓸린 의료 산업 지형을 균형 있게 맞춘다는 명분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결의를 기점으로 대시민 서면운동을 확산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본 회사는 2025년 10월 24일 임시주주총회(주주전원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2월 15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만당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31 (운남동)  
청산인 김 병우

光州日報

지국안내

복 구 • 품 266-1920 • 문 266-1960 • 북광주 625-3761  
• 신 222-8171 • 영 251-7658 • 오 266-7601  
• 품 433-1503 • 우 433-1503

동 구 • 남 673-6836 • 동 222-9054 • 북 225-6001  
• 중 222-9054 • 충 222-8171

남 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북 673-6836  
• 중 675-6605 • 전 671-7276

서 구 • 경 382-5788 • 상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376-7153 • 치 376-6511 • 품 603-0311  
• 회 369-1625

광산구 • 일 952-1687 • 월 950-1920 • 품 973-2900  
• 해 950-0451 • 경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계재문의

062.227-9600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 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 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